

# 죽음같은 고래 뱃속에서

모나서 강해

뉴저지장로교회  
김도완 목사  
설교 시리즈 4



## 목차

- 다시스로 가고 싶을 때 ■ 3  
/ 요나 1:1-17
- 당신에게 절망이 필요한 이유 ■ 9  
/ 요나 2:1-10
- 당신이 니르웨로 갔을 때 ■ 15  
/ 요나 3:1-10
- 하나님의 마음 ■ 21  
/ 요나 4:1-11





## 다시스로 가고 싶을 때



### 요나 1장

#### 다시스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요나서 1장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심판이 임박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니느웨는 기원전 7-8세기 경 이스라엘에게 철천지 원수와도 같았던 앗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니느웨를 향해 느끼는 감정은 식민지 시절 우리가 일본을 향해 가졌던 감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니느웨를 위해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도망합니다. 3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은 1:3)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옴바로 내려갔더니.....

예전에 한 일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처음 일본을 향한 소명을 발견했을 때 정말이지 일본만큼은 섬기기가 싫어서 ‘오 주님, 어떤 오지라도 기꺼이 갈테니 일본으로만 저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요나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섬기도록 혹은 가정과 일터를 복음화하도록 혹은 불의한 관행을 바꾸는 개혁자가 되도록 혹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이 뜻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하여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의 니느웨를 택하지 않고 불순종의 다시스를 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첫째,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스로 가도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가 맞겠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은 1:3)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옴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약 2,600년 전 팔레스틴에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스페인까지 가는 배가 얼마나 자주 있었을까요? 매일 있었겠습니까, 매주 있었겠습니까? 아마 아무리 짧게 잡아도 몇 달은 항해해야 하는 거리인데 아무리 자주 잡아도 한 달에 한 척이 있다면 엄청나게 자주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요나가 욥바 항에 내려가자마자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이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일이 술술 풀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아내와 대판 싸우고 ‘그래 헤어져!’라고 소리치고 나왔는데 출근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혼전문변호사 명함을 줍니다. 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동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흔히 행동을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고 우리 뜻대로 잘 되는대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둘째, 영성이 추락한다**

우리가 다시스로 가면 반드시 겪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성의 추락입니다. 다시스행 배를 탄 요나의 걸음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큰 풍파를 일으키십니다. 그 때 일어나는 일을 3, 5, 17절에서 차례로 보십시오.

(은 1:3) 그러나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은 1:5) ...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은 1:17) ...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 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표현은 단지 물리적 위치가 하강했다는 것 이상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영성이 밑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성을 잃은 것은 마치 군인이 총을 잃

고 새가 날개를 잃고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성도를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성이요, 이 영성을 잃은 성도는 타버린 연탄재처럼 보잘 것 없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성장을 멈추고 추락을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다 시스로 가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입니다.

요나의 영성이 추락할대로 추락해버렸다는 사실은 배의 선원들과 요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선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선원들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웃들의 생사가 걸린 순간에도 잠이 들어버립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욘 1:5)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우리의 영성이 추락할대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외롭고 고달프고 춥고 아프고 쓰러져 가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별로 아프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왜 단잠을 거스르고 새벽에 그렇게 꼭 기도해야 합니까? 왜 바쁘고 피곤하고 여유도 없는데 나누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살아있는 영성의 사람은 풍랑과 싸우는 이웃의 고난을 보며 모른 척하고 잠들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도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 셋째, 수치를 당한다

총을 잃은 군인, 날개를 잃은 새, 지느러미를 잃은 물고기가 된 이들의 모습이 어떠하며 그래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영성을 잃은 성도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은 1:6)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나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요나의 잠을 깨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름이 부끄럽게도 '자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꾸지람을 듣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잘 수가 있느냐?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줄 어떻게 아느냐? 지금 누가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이 설교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은 1:10)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어떻게 그렇게 옳지 않게 행동하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130년 선교 역사에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교회는 동네북이 된 형국입니다. 이민사회에서도 교회는 그 위치나 공헌도에 걸맞는 존경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일까요? 교회에 대한 무지와 악의적인 태도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동시에 우리 교회가 초래한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외면하고 다시스의 풍요에만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웃의 배가 풍랑에 뒤집히려 고 하는데 영적 잠에 빠져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교회를 향해 분노하고 욕설을 퍼붓는 이들의 소리가 요나를 깨우는 선원들의 꾸지람은 아닐까요?

## 다시스행 배에서 내려라

지금은 목회자가 되신 김기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분은 주일마다 아내와 '교회가자', '놀러가자'를 놓고 싸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모임에서 춘천을 가는데 오늘만 주일을 빼먹고 놀러가자고 조르다가

아내가 듣지 않자 교회가기로 하고 집을 나서서는 차를 춘천가도로 휙 돌려버렸답니다. 옆에서 아내의 잔소리를 들은 척 만 척 신나게 달리는데 맞은 편 차선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 눈 깜짝할 새에 이 차를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옆자리의 아내와 뒷자리의 아이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김기동 집사는 울부짖으며 한 번만 가족들을 살려주시면 다시는 주님을 거역하지 않겠노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가족 중 누구도 목숨이 상하지 않고 치료 끝에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그 일 이후 김기동 집사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감격을 맛보고 나니 자신처럼 헛된 욕심으로 살던 이들이 불쌍해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재미가 붙어 나중에는 한 해에 몇 백명씩을 전도하는 이가 되어 고구마전도왕이라는 책을 내고 잘 되던 사업도 접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김기동 집사님은 하나님의 풍량을 만나 잠에서 깨어 다시스행 배에서 내려 니스웨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고집을 꺾지 않아 마침내 물고기 뱃속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스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요나를 기억하십시오.



## 당신에게 절망이 필요한 이유



### 요나 2장

#### 왜 절망을 주시는가?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하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요나는 본문의 기도를 드립니다.

물고기 뱃속은 죽음 같은 절망을 상징합니다. 어떤 빛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는 완전한 어둠의 상태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히는 사건을 바로 이 요나의 사건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요나의 사건은 오늘날에도 죽음 같은 절망 속에 던져지는 경험을 하는 우

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건강을 잃고 재정적 위기에 빠지고 가정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요나처럼 감잡힌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망 속에 던져 넣으십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 자아가 죽기를 원하신다

2장 말미로 가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십니다. 10절입니다.

(은 2:1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왜 하나님은 바로 이 때 요나를 건지셨습니까? 그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1-9절까지 요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요나의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2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은 2:2)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은 유대인들이 가진 관념에서는 죽은 자가 내려가는 곳입니다. 6절입니다.

(은 2:6)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산이 자신을 덮고 있고 빗장을 질러 나가는 문을 막아버렸다! 이 두 구절에서 요나는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 하겠노라고 버티던 요나의 자아의 죽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나가 드리는 기도는 '자아가 죽은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께 양도된다

왜 우리의 자아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자아를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C.S.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자아 양도'라고 주장합니다. 자아 양도란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피조물이 자기 본성에 어긋나는 이 자아 양도의 일을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아담의 타락을 최대한 상쇄시킬 수 있으며 멀리 떠난 낙원을 향해 전속력 후진을 감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가장 훌륭한 모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루이스도 지적했듯이 자아 양도는 자연인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한 타락한 피조물이 최대한 의지를 발휘하여 행할 마음을 먹지 않는 옳은 행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곧 자기 양도의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일이 자아를 양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던져 넣으십니다! 거기서 우리의 자아는 죽습니다. 죽으면 그제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죽어버렸으니 아까워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자아가 죽어야 부활을 경험한다

그럼 우리의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기독교 진리의 놀라운 점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때 오히려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죄로 멸망 받을 옛 자아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새 자아로 태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17입니다.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가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25입니다.

(마 16: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부활합니다. 죽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풍랑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절망 속에 던져 넣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께 양도되어 새 자아로 부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자아가 죽어야 절망이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절망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끝이 납니다. 신약의 요나라고 할만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31에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전 15: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자아가 날마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는 요나가 경험한 물고기 뱃속에서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행 9: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행 9:9)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행 9:11)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행 9: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리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는 요나처럼 3일간 완전한 어둠에 묻혔습니다. 그는 요나처럼 철저히 자아가 죽은 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께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빛 속에서 나와 세례를 받고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아의 죽음은 우리를 새로운 요나, 새로운 바울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문제는 절망 속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아니라 자아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자아가 죽으면 절망은 끝이 납니다. 절망은 옛 자아가 느끼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아도 더 이상 절망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진 자아가 느낄 절망은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망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요행히 고난이 끝나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옛 자아는 전속력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절망이 끝이 납니까?

## 절망 중에 자아가 죽은 자의 기도를 드린 정근모 총장

전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중 한 분인 전 정근모 박사는 1974년 10살 난 아들이 만성신장염으로 5년 밖에 살지 못 한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미국생활 중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는 그 때로부터 아들이 입원과 수술과 퇴원을 반복하다 세상을 떠나기까지 십수년을 죽음 같은 물고기 배속의 절망을 경험합니다. 성령세례를 강조하는 교회였던지라 그 와중에 아들을 위해 예배를 드리러 온 권사님들이 그에게 성령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마다 '지성인인 내가 어떻게 울고불고하며 성령세례를 달라고 기도하나,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잠잠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으면 모를까'라고 혼자 생각했답니다. 1982년 주일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근모야, 네가 아들로 인해서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감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네? 제가 어떻게 아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까? 저처럼 초등학교부터 유학시절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장관에 총장에 세계적인 과학자로 명성을 떨치며 부모에게 자랑이 된 아들이라면 모를까 철들기도 전에 불치병에 걸려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온갖 말썽을 다 피우며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로 인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저 아들이 아니었다면 교만한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네 아들이 너를 회개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 순간 정근모 박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 습니다.

"네 아들로 인해 감사하라, 네 아들로 인해 감사하라"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려왔고 그는 예배 중에 흐느끼 기 시작하여 예배를 마칠 때가 되자 주변의 교인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통곡을 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 아들까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Rise up Korea라는 청소년복음화 운동을 하고 있는 정근모 박사는 어느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 민족의 역사, 개인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주의 절대자이신 그 분의 사랑을 나는 누구보다 많이 받았다. 하나님 께서는 한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신다. 그 분은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이다."

정박사는 죽음 같은 절망을 통해 자아가 죽은 자의 기도를 드리고 부활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허락되는 이유는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러진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 당신이 니느웨로 갔을 때



### 요나 3장

#### 당신이 니느웨로 가면 이웃에게 축복이 된다

요나서 3장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좀 살펴보면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을 만나고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갇히게 됩니다. 2장에서 그는 자아가 죽은 자의 기도,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십니다. 이제 3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지난 1장에서 우리가 사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이웃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

다.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혀 모든 선원들이 다 죽을 뻔 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3장에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사명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 답은 ‘이웃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5-6절을 보십시오.

(욘 3:5)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 옷을 입은 지라  
(욘 3:6)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는 10절입니다.

(욘 3:10)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로 인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스에 응답하여 불순종과 방황의 길을 떠나 순종과 사명의 길을 떠나면 그 자신 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동료와 이웃 모두에게 축복이 됩니다.

## 당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해서 무슨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 합니다. 죄를 완전히 끊지 못 했고 절제하는 훈련도 안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3-4절을 보십시오.

(은 3:3) 요나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스웨로 가니라 니스웨는 '사흘' 동안 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은 3:4)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스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길을 가야 제대로 돌아볼 만한 성에서 그는 얼마 동안 다니며 선포하였습니까? 하루 동안입니다. 게다가 그의 선포 내용은 너무나 짧습니다. 왜 심판이 임하는지,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해야 심판을 피하는지 앞뒤 다 잘라먹고 오로지 '심판 받을 것'이라는 것만 선포하고 맙니다. 이러한 점들은 선포자로서의 요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사명의 길을 가긴 했으나 그 사명을 전심을 다해 감당했다고 하긴 힘이 듭니다.

먼저 요나는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의 자아가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사명의 길로 돌이키기는 했으나 아직도 마음에는 진정으로 니스웨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니스웨가 정말 구원받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놀랍게도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그들이 모두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회개시킨 진정한 힘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나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전 미문에 있던 장애인을 고치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12입니다.

(행 3:12)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선포자에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씨앗 자체에 있는 생명력에 의한 것임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26-28입니다.

(막 4:26)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막 4:27)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막 4: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같지만 혹은 우리의 경건이 축복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자체의 생명력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당나귀와 같습니다. 당나귀는 잘날 필요도 멋있게 치장할 필요도 없고 그저 예수님을 실어 나르기만 하면 메시아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역일꾼들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인도하는 성경공부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역일꾼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를 교회로 이끄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계획과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말고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움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니느웨라는 사명의 삶으로 보내시는 그 분, 우리가 태우고 예루살렘에 모시고 들어가는 그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토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만 모시고 가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은 3:10)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대단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찬양했겠지만 믿지 않았던 이들은 그들의 의심을 의기양양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는데 우리가 괜히 두려움에 떨었던 거야. 요나의 말이 진짜였는지 아닌지 누가 알겠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방법은 용서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너그러운 상사와 무서운 상사 중 누구를 더 의식합니까? 정부가 세금을 면제해 때 고마워하는 마음과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 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실 때보다 무서우실 때가 더 사람들의 주목을 끄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심판하는 것이 더욱 당신의 존재를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보다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생명을 건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모독해온 불의한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이 긍휼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이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니스웨 왕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기에 온갖 악덕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8-9절을 보십시오.

(은 3:8)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은 3:9)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해 알았던 니스웨 왕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겸손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불행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고발의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구약의 솔한 선지자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며 회개를 부르짖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이방인 니스웨 백성들은 요나의 단 하루 동안 그것도 건성으로 하는 선포를 듣고 철저히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마만큼 크다는 반증이 됩니까?

오늘 우리는 문서로 된 구약과 신약이라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고, 매일 새벽 교회에서, 라디오나 TV를 틀기만 하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떤 박해나 억압도 없이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삶을 살지 못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교만과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하나님의 마음



### 요나 4장

#### 시기, 인간의 본성

유대인들의 지혜문서인 탈무드에 천사를 만난 장사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당신과 경쟁하는 옆집 장사꾼이 당신이 얻은 것의 두 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100만 불을 받으면 그는 200만 불을 받게 되단 말입니까?”

“물론이지요.”

그러자 그 장사꾼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한 쪽 눈을 멀게 해 주시오.”

경쟁자가 잘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같이 망하는 것을 보겠다는 이 심리상태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을 ‘시기’라고 부릅니다. 시기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성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감정입니다. 이 세상에 시기보다 뜨거운 불길은 없습니다. 시기는 선한 생각과 감정을 모두 태워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남의 불행보다 기쁜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C.S.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 스크루테이프의 입을 빌어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두의 수치, 하락, 파멸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루이스는 또 현대 사회 전체가 시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꿰뚫어봅니다. 부자들에게 대한 시기, 앞서간 이들에 대한 시기, 경쟁자들에게 대한 시기 등... 그는 평등주의의 가면을 쓴 현대사회의 시기심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시기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은 이들조차도 그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주인공 요나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기하는 요나

우리는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되었습니다. 4장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요나와 하나님의 서로 상반되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요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시기입니다. 1-3절입니다.

(욘 4:1)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욘 4:2)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  
이니이다.

(은 4:3)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  
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이런 상황을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그의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스로 도망하였던  
이유도 바로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일이 일어나지 못 하게 하기 위해  
서였습니다. 그는 원수가 잘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이 모든 생각과 감정이 곧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시기를 가진 채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천국의  
마음이 아니라 지옥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크 부캐넌이라는 캐나다  
의 한 설교가는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어떤 이는 다른 이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부  
러움을 느낀다든가 시기한다든가 원한을 품는다든가 후회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 없음을 말하  
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시기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잘 어울리는 마음  
입니다. 지옥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남이 더 누리는 것을 견디지 못  
하는 마음으로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시기  
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옥을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내면세계가 얼마나 어둡고 황폐하고 고통스러울지 상상해 보십시오.

구원이란 죽음 이후 우리의 상태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어떤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마음인 시기의 노예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아 천국의 마음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  
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천국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  
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5-11절까지의 에피소드가 요나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직 니느웨의 심판의 철회되기 전에 요나는 성 동쪽으로 나가 임시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니느웨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기로 합니다. 그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박넝쿨이 초막 지붕에 자라나 그늘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 때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은 4:6) .....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는 것에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분노하던 이가 자신의 몸의 편안함으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새 차를 사면서는 그토록 기뻐하면서도 이웃이 잘되는 일에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도록 해 그늘을 거두시고 햇살과 더운 바람을 불게 하자 이번에는 요나가 분노합니다. 바로 그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도전하십니다. 9절입니다.

(은 4:9)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이다.’ 하니라

정말 너의 분노가 정당한 것이냐? 그럼요, 죽도록 화를 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꿈을 앗아가셨으니, 건강을 잃도록 하셨으니, 직장을 잃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이를 데려가셨으니 내가 화를 낸다고 누가 나를 뭐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그 항변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당신의 마음을 열어보이십니다. 10절입니다.

(은 4: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너의 박넝쿨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 너의 부와 직장과 기회와 건강과 심지어 네 생명까지도 네가 만들고 네가 수고하고 네가 얻은 것이냐? 이 박넝쿨처럼 그것들도 모두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이 아니냐? 너는 모두 은혜로 거저 얻은 것인데 그것들을 잃은 일로 나를 원망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 모든 것은 애초부터 그 무엇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욘 4:11)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 이만 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 너는 네 것이 아닌데도 그것들이 그렇게 아깝구나. 그런데 이 니느웨에는 좌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 하는 십 이만 여명과 가축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내가 창조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내게는 그것들이 얼마나 더 아깝고 소중하겠느냐?

##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한국 TV에 버림받은 한 늙고 쇠약한 할머니의 사연을 보았습니다. 시골에서 아들의 손에 이끌려 서울역에 도착한 할머니는 해가 지고 찬이슬이 내릴 때가 되어서야 먹을 것을 사 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며 사라진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경찰서 의자에 앉은 할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말해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 못 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을 버린 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아무리 당신을 거역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들을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거둘 수 없는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노예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생각하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에 타는 듯이 아프고 칼에 저미듯이 고통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건지려고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 하고 도망치자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기어이 그를 니느웨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래도 깨닫지 못 하자 박넝쿨을 주셨다가 다시 그 박넝쿨을 빼앗아 가시면서 요나를 깨우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을 뒤흔드는 풍랑과 큰 물고기 뱃속의 절망과 박넝쿨의 풍요와 상실, 헛살과 동풍의 고단함을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옥의 마음인 시기를 버리고 천국의 마음인 긍휼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것은 거역하는 자녀를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어찌하지 못 해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요나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데도 실패하였습니다. 요나는 실패한 민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온전히 이해하셨고 온전한 순종으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겻세마네에서 온전한 순종하고 십자가를 향해 곧장 나아가신 분입니다. 거센 풍랑 같은 채찍질과 못질을 이겨내시고 물고기 뱃속 같은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보혈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요나와 달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제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시기의 마음을 버리고 긍휼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온전한 순종을 배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응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구원의 삶을 누리며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전히 시기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요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풍랑과 물고기와 박녕쿨과 동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외한인  
장로회 **뉴저지장로교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New Jersey  
담임목사 김도완

**팔리세이파크**

500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4-5756

**오를랜드**

222 Ramapo Valley Rd,  
Oakland, NJ 07436  
Tel. 201-337-1313

**주일 장년예배**

팠팠	1부 예배	7:00am
	2부 예배	8:30am
	3부 예배	10:00am
	4부 예배 (영상설교/찬양예배)	11:30am
	청년부 예배	2:00pm
오를	히스패닉 예배	4:00pm
	3부 예배 (영상설교)	10:00am
	4부 예배 (찬양예배)	11:30am
	영어부 예배 (EM)	11:00am

**주일 교회학교 예배**

팠팠	10:00am	유아, 유치부(3-6세)	2교육관
		유초등부(1-5학년)	1교육관 1층
		중고등부(6-12학년)	1교육관 2층
오를	11:30am	영아부(1-3세)	2교육관
		영아부(1-3세)	영아부실
		유아부(3-4.5세)	유아부실
		유치부(4.5-6세)	유치부실
		유년부(1-3학년)	유년부실
		초등부(4-5학년)	초등부실
		중등부(6-8학년)	중등부실
고등부(9-12학년)	고등부실		

**중고등부/대학부 금요일모임**

중고등부	팠팠 1교육관 2층	6:45pm
대학부	팠팠 1교육관 1층	7:30pm

**주중 기도회**

팠팠	새벽 기도회 (월-토)	6:00am
	수요 오전 기도회	10:30am
	수요 저녁 기도회	7:50pm
	금요 기도회	8:30pm
오를	중보기도 (월-주일)	7:00am
	새벽기도회 (월-금)	6:00am

**부속 사역**

버겐경로대학 (팠팠, 토)	10:00am
팠팠한국교회 (팠팠, 토)	9:30am
오를한국교회 (오를, 주일)	2:00pm
Awana (오를, 주일)	1:30pm
초등이 배움터 (팠팠, 월-금)	3:00pm

**김도완 목사 설교 방송**

- 미주기독교방송(KCBN) DTV 채널 63.7 / AM 라디오 740 토요일 7am, 3pm, 11pm
- 뉴욕기독교방송(CBSN, 인터넷라디오) 화요일 7am, 5pm
- 단비TV(타임워너케이블 ch1487) '뉴젠펬시지' 수요일 7pm, 금요일 8am

**김도완 목사 Podcast 설교**

- 아이폰: 팟캐스트 앱 다운 후 '김도완목사' 검색
- 안드로이드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Castbox 앱 다운 후 '김도완' 검색